우암학원 창학 75주년
WCC 세계적인 전문대학 선정!!
전남과학대학교
CHUNNAM TECHNO UNIVERSITY

光州日報
SINCE 1952

아름다운 금융, 다채로운 금융, 함께하는 금융
평생어부바
광주문화신협
대표번호 1644-7990
본점·여신사업부·문흥지점·양산지점·운암지점·매곡지점·첨단지점·동림지점·등광주지점·각화지점

1952년 4월 20일 창간 제22557호 1판 대표전화 (062)222-8111 kwangju.co.kr 음력 6월 20일 2025년 8월 13일 수요일

이금주 '일제강제동원' 기록물
〈일제 강제동원 피해자 대모〉
유네스코 세계유산 등재 추진

광주시 북구 임동 옛 전남·일신방직 부지에 있는 일제잔재 건축물인 화력발전소. 광주시는 해당 부지 인근에 '일제강제동원 시민역사관'을 건립할 계획이다. /김진수 기자 jeans@kwangju.co.kr

故 이금주 여사

광주시, 광복 80년 전방·일신방직 부지에 '시민역사관'
이금주 할머니 기록물 연구·보존 위한 인프라 구축

광주시가 '일제강제동원 피해자 대모' 고(故) 이금주(1920~2021) 여사가 남긴 기록물을 유네스코 세계기록유산으로 등재하기로 했다. 〈관련기사 3면〉

이 여사의 방대한 기록물을 보존·연구하는 '일제강제동원 시민역사관'(가칭·역사관)을 우선 건립하고 본격적으로 세계기록유산 등재에 나서는 추진 전략도 마련했다.

12일 광주시에 따르면 광주시는 광복 80주년을 맞아 평생 강제동원에 대한 일제의 사과와 반성을 촉구해온 이금주 여사가 남긴 기록물 1670점을 유네스코 세계기록유산으로 등재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등재 대상은 일제 강제동원 피해자 증언·동원자 명부, 일본 정부에 제기한 소송 원본, 영상물 등 강제동원 피해실태와 일제의 만행을 수록한 국내외 자료다. 태평양전쟁희생자 광주유족회의 활동 사진, 영상을 비롯해 이 여사가 광주유족회를 이끌며 일본 정부를 상대로 한 1000인 소송에 참여한 피해자 1273명의 소장도 포함돼 있다.

시는 이 여사의 기록물을 보존·연구하기 위해 옛 전방·일신방직(전일방) 부지 내 '역사문화공원'에 역사관을 조성할 계획이다.

옛 전일방 부지가 과거와 미래를 잇는 '일제강제동원시민역사관' 건립의 최적지라는 (사)일제강제동원시민모임(시민모임)의 의견을 받아들인 것이다. 일제 강점기에 세워진 이들 공장은 식민수탈과 강제동원의 상흔을 품고 있는 공간이다.

이 여사가 남긴 기록물은 현재 일제강제동원 시민모임 사무실(광주시 서구)에 보관돼 왔다.

국가기록원에서 자료 이관요청이 왔음에도 시민모임은 이 자료를 넘기지 않고 역사관 건립을 추진해 왔다. 광주·전남지역 사료로 남기기 위해서다.

광주시는 2024년 '일제 강제동원 대일항쟁 정신 계승을 위한 협의회'(TF)를 구성하고 역사관 건립을 추진했지만, 한차례 회의만 진행된 채 흐지부지됐다.

하지만 광주시는 광복 80주년을 맞아 옛 전방·일신 방직 부지에 역사관을 건립하기로 했다.

건립 대상지는 전일방 부지 개발사업 과정에서 공장 건출물 보존 구역 2곳에 조성될 역사문화공원이다. 시는 역사문화공원1 부지(면적 1만 5847㎡)에 건립을 추진할 방침이다.

1부지에는 화력발전소와 2개의 보일러실, 고가수조 등의 일제 잔재건축물 4개가 남아 있다. 잔재건축물 원형을 보존하고 인근에 역사관을 건립한다는 것이 광주시의 복안이다.

광주시는 전일방 부지 개발사업자인 휴먼스홀딩스PFV측에 역사관 건립을 제안할 방침이다. 시는 개발사업 착수전 사업자에게 공공기여 부분(공원 조성사업) 조건을 부과한 상태다.

광주시는 오는 2029년 역사관 건립을 첫발로 해당 기록물을 유네스코 세계기록유산 등재를 본격화 한다. 광주시·전문가·시민단체·역사학계·법조계·보존 전문가로 구성된 등재추진위원회를 구성하고, 기록물에 대한 국제 심포지엄 개최 등을 통해 기록물 가치와 이금주 여사 활동을 조명해 세계적으로 보존해야할 가치가 있는 기록물임을 알린다는 계획이다.

광주시는 5·18민주화운동 기록물을 유네스코 세계기록유산으로 등재한 노하우를 토대로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등재를 완료할 방침이다.

박용수 광주시 민주인권평화국장은 "이금주 여사의 기록물은 유네스코 세계기록유산의 가치가 충분하다"면서 "일제에 의해 수탈과 강제노역의 아픔을 겪은 광주·전남 피해자들의 기록은 세계적으로 중요한 의미를가진다"고 말했다.

/정병호 기자 jusbh@kwangju.co.kr

사랑과 감사의 71년
믿음과 소망으로 100년
[1954~2025]
기독교명문대학
광신대학교
www.kwangshin.ac.kr

알립니다

광주 군공항 이전 토론회

한상원 회장

김성걸 연구원

윤희철 센터장

손승광 교수

김항집 교수

13일 오후 2시 광주MBC 스튜디오
실질적 추진 방향 제시·로드맵 마련

광주일보가 광주MBC·목포MBC와 함께 광주·전남 지역 최대 현안인 '광주 군공항 이전 방안 마련'을 위한 토론회를 개최합니다.

이번 토론회는 정부 주도 광주 군공항이전 6자TF 구성에 발맞춰 우리 지역사회에서 선도적으로 '정부 주도 이전과 종전부지 무상이전'을 핵심으로 하는 실질적인 추진 방향을 제안하는 자리가 될 것입니다. 이를 바탕으로 국토균형발전의 새로운 정책 모델을 제시함으로써 호남권 신성장 거점 조성의 구체적인 로드맵을 마련하고자 합니다.

'정부 주도 광주 군공항 이전 어떻게 할 것인가'를 주제로 열리는 이번 토론회는 세부 프로그램으로 ▲1부, 국가안보시설 이전 책임 주체 국방부(한상원 광주상공회의소 회장) ▲2부, 군공항 이전의 최대 걸림돌 '소음' 해결방안(김성걸 전 국방연구소 연구원) ▲3부, 종전부지 무상 이전과 부지 활용방안(윤희철 한국지속가능발전센터장) ▲4부, 종합토론 및 국가정책 제언(손승광 동신대 건축공학과 교수·김항집 광주대 도시계획부동산학과 교수)으로 이어집니다.

■ 일시 : 8월 13일(수) 오후 2시
■ 장소 : 광주MBC 스튜디오
■ 주최 : 국회의원 이개호·신정훈·민형배·권향엽·김문수·문금주·안도걸·전진숙·정준호 정진욱·조인철
■ 주관 : 광주일보·광주MBC·목포MBC
■ 후원 : 광주상공회의소

光州日報社

한·미 정상회담 25일 개최

이재명 대통령 24~26일 방미

이재명 대통령이 오는 25일 미국에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첫 정상회담을 한다. 〈관련기사 3면〉

대통령실 강유정 대변인은 12일 브리핑을 통해 "이 대통령은 트럼프 대통령의 초청으로 오는 24~26일 미국을 방문할 예정이다"고 밝혔다.

이번 방미는 실무 방문 형식으로, 이 대통령은 백악관에서 트럼프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하고 업무 오찬을 할 예정이다. 김혜경 여사도 동행한다.

강 대변인은 이번 정상회담이 25일로 정해진 배경에 대해 "트럼프 대통령이 앞서 관세협상을 타결하며 '2주 이내 정상회담'을 언급했지만, 그 당시에도 정확하게 시한을 정한 것으로 보기는 어려웠다"며 "양국 정상의 일정이 빠듯한 상황에서 실무조정을 거쳐 정해진 날짜"라고 설명했다.

강 대변인은 "두 정상은 한미동맹을 미래형 포괄적 전략동맹으로 발전시키기 위한 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라며 "굳건한 한미 연합 방위태세를 더욱 강화하는 가운데 한반도의 평화 구축과 비핵화를 위한 공조 방안에 대해서도 논의하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 "이번에 타결된 관세협상을 바탕으로 반도체·배터리·조선업 등 제조업 분야를 포함한 경제협력과 첨단기술, 핵심 광물 등 경제안보 파트너십을 강화하기 위한 방안도 협의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강 대변인은 '재계 총수나 경제단체 등이 동행하느냐'는 질문에 "경제사절단과 함께 방문할 의사는 충분히 있다"면서도 "아직 구체적인 논의가 되지 않고 있으며 발표할 단계도 아니다"고 답했다.

/오광록 기자 kroh@kwangju.co.kr